

인용 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과 지도 방법*

이 중 철**

<차례>

- I. 들머리
- II. 인용 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
- III. 인용 표현의 지도 방법
- IV. 마무리

I. 들머리

본 논문은 언어 대중이 종종 인용하는 언어 표현이 형태상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양상과 관련하여 인용 표현의 지도 방법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언어 표현을 산출하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언어 표현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표현을 인용하는 행위는 주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종 수행된다. 국어학에서 흔히 ‘인용’을 ‘누군가의 말을 옮기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¹⁾, 본고에서는 이 정의에 ‘표현 효과를 얻

* 이 논문은 2001년도 호서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호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jcllee@office.hoseo.ac.kr)

1) 인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필영(1992:4-7)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제한된 범위의 인용만을 다루므로 자세한 논의는 피한다.

두에 두고'라는 말을 앞에 한정하여, 이처럼 한정된 인용의 경우만 다루고 이때 인용되는 언어 표현을 인용 표현²⁾이라 부르겠다.

인용 표현은 기본 형태³⁾가 그대로 쓰일 수도 있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형태가 변형되어 쓰일 수도 있다. 현대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전통과 위인 등의 절대적 권위가 약화되어 상대적이고 다양한 가치가 통용되는 시대여서, 인용 표현의 경우에도 기본 형태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약화되어 화자나 필자의 의도에 따라 그 형태가 변형되어 쓰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어 교육에서 인용 표현에 대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이러한 경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언어 대중에 비하여 미숙한 언어 사용자이므로 능숙한 언어 대중의 언어 사용 전략을 학습하면 언어 사용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인용 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신문, 잡지, 방송 대본 등⁴⁾에서 인용 표현이 쓰인 용례를 수집하여 그 양상을 분석한다. 인용 표현의 하위 범주에는 먼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온 것으로 명언, 속담, 고사성어, 격언 등이 있다. 그리고 요즈음 대중문화의 부상과 함께 대두한 것으로 대중문화와 관련된 저서·문학 작품·영화·가요 등의 제목과 내용, 광고 문안 등이 있다. 대중문화적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화용론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연구의 대상이 되나, 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Ⅱ. 인용 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에서는 모든 인용 표현의 하위

2) 남의 말이나 글에서 따온 구는 인용구, 문장은 인용문이라 부르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언어 표현의 층위는 단락을 포함하므로 '인용 표현'이란 용어를 쓴다.

3) 인용 표현의 기본 형태란 일반적으로 언중이 사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형태를 말한다. 그런데 사용 빈도는 높지만 이전에 사용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언중이 인식하고 그 형태를 기억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나타난 형태가 기본 형태가 된다.

4) 본고에서 인용 표현의 용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선택한 주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동아일보, 주간동아 2001.1.~9., (2) 샘터(월간지) 2001.1.~9., (3) 제13회 2000년도 한국방송작가상 수상작품집 드라마 편, 비드라마 편.

범주를 다루고, 'Ⅲ. 인용 표현의 지도 방법'에서는 하위 범주들을 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논한다.

그리고 인용 표현의 층위에는 일반적으로 구, 문장, 단락, 텍스트 층위들이 해당되나, 본고에서는 텍스트 층위를 제외하고 구, 문장, 단락 층위만 다루겠다. 텍스트 층위에서의 형태적 사용 양상은 작품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해당되므로 '패러디5)' 범주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본고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 논저로는, 신문 기사 제목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부분적으로 인용 표현의 사용 양상에 대하여 진술한 박금자(1999:45-7), 한국미디어교육센터 편(2001:150-76)이 있고, 그리고 속담, 고사성어의 형태적 사용 양상에 대하여 연구한 이종철(1993: 64-72, 2001:53-65) 등이 있다. 지금까지의 논저들을 살펴보면 본고의 주제를 전반적으로 포괄하여 고찰한 연구 논저는 없다. 본고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는 속담과 고사성어는 앞에서 언급한 줄고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다루었다고 판단하여 그 양상은 다시 고찰하지 않고 논지 전개상 필요할 때 적절히 인용하겠다.

인용 표현의 지도 방법은 수사학적, 언어 계량적, 국어 발달적 측면 등 여러 측면을 바탕으로 구안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형태적 사용 양상이라는 화용적 측면과 관련하여 국어 교육에서 인용 표현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언어 표현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는 언어 표현이 쓰인 맥락과 상황 속에서 그것의 기본 의미와 전달 의미, 그리고 기본 형태가 변형된 양상과 전달 의미 등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인용 표현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도 이러한 영역들을 모두 고찰하여야 하나, 본고에서는 인용 표현이 사용될 때 나타나는 형태상의 양상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5) 요즈음 '패러디'란 말이 구 이상 층위의 기존 언어 표현을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변형하는 경우에도 종종 사용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층위는 텍스트 층위이다.

II. 인용 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

인용되는 표현은 누군가 발화 이전에 언급한 것인데, 언어 대중이 그것을 종종 사용하게 되면 그것의 고유한 형태가 언어 대중에게 기억된다. 그래서 화자나 필자는 그것을 인용하고자 할 때에 언어 대중에게 기억된 형태를 염두에 두어야 인용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인용 표현의 형태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면 그 인용 표현은 다른 형태의 유의적 언어 표현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지니게 되어 형태의 동결도가 높아진다. 형태의 동결도가 높다는 점에서 보면 인용 표현은 관용 표현과 공통점이 많다. 관용 표현은 비축자적 의미를 지니고, 그 형태의 동결성이 높다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다. 인용 표현 중에는 많은 것이 비축자적 의미를 지니나 축자적 의미를 지닌 것도 있고, 관용 표현 중에서도 속담, 격언, 고사성어 등은 인용 표현에 포함되나 속어, 인사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절에서는 인용 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을 구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절의 논의 방식은 관용 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을 구명하는 데 적용한 방식과 많은 점에서 일치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줄고에 따르면 화자나 필자가 속담, 고사성어를 사용할 때 기본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 표현의 형태⁶⁾를 단순하게 분석하면 ‘단어×통사 구조’로 기술된다. 화자는 그의 의도에 따라 기본 형태를 구성하는 단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통사 구조를 변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용 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은 기본 형태의 사용, 구성 어휘의 대체, 통사 구조의 변개 세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언어 표현의 최소 단위인 어휘소는 언어 대중에게 그 자격을 인정받아 일반적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 최근에 새로 생성된 말은 그 자격을 시험받고 있어 아직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못하다. 새로 생성된 말

6) 본고에서의 인용 표현은 언어 층위상 구 이상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사용되는 ‘형태’는 단어의 연속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은 임시어 상태로 있다가 어휘소로 인정받거나 소멸되어 버린다. 이러한 현상은 관용 표현, 인용 표현에도 나타난다. 인용 표현 중에는 오래전에 생성되어 종종 인용되어 온 것들 - 어휘소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오래전에 생성되었으나 요즈음에야 인용되는 빈도가 증가되었거나 최근에 생성되어 종종 인용되는 것들 - 유행하는 임시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도 있다. 유행어 상태의 인용 표현은 언어 대중이 앞으로 계속해서 종종 인용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나, 비교적 오랫동안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은 현재 언어 대중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어 교육에서도 다루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전통적 인용 표현, 후자를 신생적 인용 표현이라 명명하고 앞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부류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겠다.⁷⁾

2.1. 기본 형태의 사용

언어 대중이 종종 인용하는 인용 표현의 세부적인 범주로는 명언, 속담, 고사성어, 격언, 속신어, 속설, 논저, 문학 작품, 가요의 가사, 광고 문안, 표어, 제목, 유명어 등이 있다.⁸⁾ 이 세부 범주 중 전통적 인용 표

7) 임지룡(1997:274-5)에서는 ‘먹거리’라는 새말이 언론기관과 여러 학회에서 널리 쓰이고 이희승편(1982) 「국어대사전」과 한글학회편(1991) 「우리말 큰사전」에서 올림말이 되기까지 - 언중으로부터 공인받기까지 30여년의 시간이 걸렸고, ‘들머리/마무리’라는 새말이 20여년이 지나면서 저서와 논문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논한다. 이러한 기준에 준하여 인용 표현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종종 인용되어 온 기간이 20~30년이 안된 것은 신생적 인용 표현에, 그 이상이 된 것은 전통적 인용 표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8) 이 세부 범주의 개념과 경계를 확연히 설정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것들의 개념과 그 경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려 한다. 속담과 격언의 구별도 지금까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한 형편인데, 격언은 속담과 달리 기본 의미가 축자적 의미이고 보편적 진실을 지닌다고 정한다. 명언은 속담·격언과 비교해 보면 언어 대중이 그것의 화자를 강하게 의식하고, 일상 언어 생활에서 적용되는 범위가 좁고, 간결한 형식미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 속신어는 최래옥(1995)에서 ‘민간 속신어’라 명명한 것으로 금

현이 속하는 범주로는 명언, 속담, 고사성어, 격언, 속신어, 속설 등이 있다. 이 범주들의 인용 표현 중에는 신생적인 것도 극히 일부가 있다. 대부분의 신생적 인용 표현이 속하는 범주로는 논저, 문학 작품⁹⁾, 가요의 가사, 광고 문안, 표어, 제목, 유명어 등이 있다. 그리고 전통적 인용 표현의 경우는 명언집, 속담집 등과 같이 인용을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수집·분류한 서적들이 있으나, 신생적 인용 표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인용 표현의 기본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태상 변형이 없으므로 그것의 형태적 양상에 대하여 고찰할 점은 거의 없다. 그런데 기본 형태를 그대로 인용할 때에 그것의 앞이나 뒤에 인용임을 나타내는 인용 표시가 쓰이고, 이 양상이 상황과 세부 범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언어 활동에서 인용을 할 때 인용 표현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인용 표시가 쓰이는 양상을 고찰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본고는 인용 표현의 지도 방법도 연구하는 것이므로 이 양상에 대한 고찰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 a.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그의 저서 '수상록'에서 "재물의 빈곤은 쉽게 치유되지만 영혼의 빈곤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기, 권장, 길조, 흉조 등의 내용을 담고 민간에서 전해져 오는 믿음을 진술한 문장이다. 본고에서는 언중이 사용하는 인용 표현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므로 '민간 속신어'의 '민간'을 생략하고 '속신어'라는 용어를 쓴다. 속설은 세상에 전하는 설이나 견해를 가리킨다. 그리고 논저와 문학 작품의 경우 일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자주 인용되고 보편성이 인정되면 그것은 명언, 격언, 속담 등의 범주에 속하게 될 수 있다. 본고의 '유명어'는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여 언중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한 세대 정도의 기간이 지나가기 이전에 남긴 말들이 속하는 범주를 말한다. '유명어' 중 보편성을 인정받은 것은 나중에 '명언', '격언' 등의 범주에 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유행어'의 위상에 놓이게 된다고 본다.

- 9) 본고에서의 '신생적 인용 표현'이란 요즈음 들어 언중이 종종 인용하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의 경우 작품 자체는 문화와 사회의 산물이어서 그 내용은 신생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전체 텍스트에서 분리되어 종종 인용되는 현상이 요즈음 발생했으면 그것은 신생적 인용 표현의 범주에 해당한다.

명언을 남겼다.

예 (1a)에서 인용 표시를 살펴보면 인용 표현의 산출자, 출전의 범주와 이름, 인용절 구성, 인용 표현의 세부 범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격식적인 언어 활동에서는 관련된 인용 표시가 거의 모두 쓰이나 일상적인 언어 활동에서는 그것의 부분집합이 다양하게 쓰인다. 그리고 이 부분집합의 모습은 인용 표현의 세부 범주와 사용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질에서는 일상적인 언어 활동에서 인용 표현의 표시들이 쓰이는 경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전통적 인용 표현 중에서 명언의 경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2) a. (영화 ‘게르니카’를 그린 화가) 피카소는 “예술은 슬픔과 고통에서 생겨난다”고 했다.
- b.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는 교훈을, 피테는 우리들에게 말한다.
- c. (공자는) (논어에서)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 했다.

예 (2a), (2b)는 명언의 화자를 명시하고 직접 인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일상 언어 생활에서 명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명언의 화자를 명시하고 직접 인용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¹⁰⁾. 화자보다 명언의 출전이 더 잘 알려진 경우에는 출전을 명시한다. 화자와 출전 모두를 밝히는 경우는 드물고 둘 중에서 더 잘 알려진 것을 밝히고, 상대방에게 잘 알려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c)에서처럼 둘 다 생략하기도 한다. 화자나 출전에 대한 설명은 격식적인 경우에는 밝히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흔히 밝히지 않는다. 인용 표현의 범주 ‘명언’도 잘 밝

10) 직접인용을 하는 경우에 인용조사 ‘-라고’가 쓰이는 것이 문법에 맞는데, 일상 언어 활동에서 간접인용의 인용조사 ‘-고’를 자주 쓴다. 이렇게 인용조사를 하나로 사용하게 되면 일상 언어 활동에서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구별은 따옴표의 사용 유무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양 명언의 경우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하여 인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 형태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2b)에 있는 괴테의 명언의 경우 기본 의미가 동일한 다음과 같은 번역들이 쓰이고 있다.

- (3) a. 눈물과 함께 빵을 먹은 사람이 아니면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 b.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 본 사람이 아니면 삶의 맛을 알지 못한다.

언어 대중이 자주 쓰는 서양 명언의 기본 형태를 설정하는 경우에, 기본 의미가 동일하면 원어에 충실한 번역보다는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기본 형태로 잡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외래어의 기본형을 설정할 때와 일치한다. 외래어는 우리말에 동화된 외국어이므로 오래전부터 언어 대중이 많이 쓰는 형태를 기본형으로 삼는데, 이 기준을 서양 명언의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겠다¹¹⁾.

- (4) a. 서양 격언에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다.”라는 말이 있다.
- b. 옛말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했다.

격언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범주를 밝히고자 할 때에 서양 격언은 ‘서양 격언’이라고 밝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격언은 ‘격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 옛말에’라는 범주 표시로 밝히는 경향이 있다. 속담의 경우에도 서양 속담은 ‘서양 속담’이라고 밝히는데, 우리 속담은 ‘(우리) 속담’, ‘(우리) 옛말’이라는 표시를 쓴다. 이러한 세부 범주를 표시하는

11) 번역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은 서양 명언뿐만 아니라 번역된 모든 인용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들의 기본 형태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서양 명언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 기준을 지지하는 예로서,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인 “Art is long, life is short.”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장은 초점이 모두 후행절에 있어서 전달 의미가 다르지만, 후자를 원어에 맞추어 다시 번역하여 쓰자고 하지는 않는다.

경우에는 직접 인용의 형식을 많이 취한다. 그런데 자주 쓰이는 격언, 속담은 범주 표시를 하지 않고 간접 인용 형식으로 흔히 인용한다.

- (5) a. 옛말에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했다.
- b. 꿈에 돼지나 용을 보면 재수가 좋다더라.
- c. ‘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잖아.
- d. 배냇머리를 깎아 주면 머리숱이 많아진다는 속설은 근거가 없다.

예 (5a), (5b)는 민간에 내려오는 믿음을 진술한 속신어이다. 이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속신어’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속신어’나 ‘속신’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미신성이 약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속신어’의 상위 범주인 ‘(우리) 옛말에’라는 표시로 밝히고, 미신성이 강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다고 하다’의 축약형이 적용된 ‘…다더라’, ‘…다는 말이 있다’ 등과 같이 인용 표현의 범주를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간접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예 (5c), (5d)는 세간에 전해지는 견해를 표현한 속설이다. ‘속설’이란 말은 ‘속신어’보다 더 흔히 쓰이는 말인데, ‘속설의 과학적 근거’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속설’이라는 용어를 흔히 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더라’, ‘…다는 말이 있다’ 등 막연하게 간접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속설’ 중 오래된 것은 ‘옛날에 어른들이 …라고 했다’ 식으로 인용되기도 한다.

- (6) a. 이는 정지용의 시에 나오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와 같은 끈끈한 정서가 담긴 노랫가락이다.
- b. (신문 만화의 장면 1부터 4까지의 대사)
대중 가요
‘고래 사냥’ 가사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 c. 이 마지막 장면은 이제까지의 모든 동화적 원형에 대한 유쾌 상쾌 통쾌한 역전승이다.
- d.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은 남아 선호 사상을

포집고 있다.

e. 한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이 유행했다.

f.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부녀회 총무를 맡은 지 벌써 2년째이다.

예 (6a)~(6f)는 신생적 인용 표현이 원래 형태로 쓰인 용례들이다.¹²⁾ (6a)는 문학 작품에서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 경우에 인용 표시로 그것의 작가, 세부 범주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출전의 범주, 제목 등이 있다. 일상적인 언어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작가가 명확한 경우에 작가는 생략되지 않으나, 출전의 범주와 제목 중에 하나는 생략될 수도 있다. 작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출전의 제목을 생략하지 않는다. 물론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세 가지 중 아무것도 밝히지 않거나 작가만 밝힐 수도 있다. 격식적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항목 중 일부나 전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가하여 기술하기도 한다. (6b)는 가요 가사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인데, 이 경우에 인용 표시로 '가요 (가사)', 이것의 상의어 '노래 (가사)', 이것의 하의어 '대중 가요 (가사)' 등의 세부 범주 중에서 한 가지, 그리고 노래를 부른 가수, 노래 제목 모두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노래 제목은 잘 생략이 안되고, 세부 범주와 가수 중 한 가지는 흔히 생략된다. 가요의 가사는 그것을 지은 작사가보다 노래를 부른 가수가 더 잘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으므로 '가수'가 인용 표현의 화자로 흔히 인식된다. (6c)는 광고 문안의 일부를 인용한 것인데, 흔히 널리 알려진 광고 문안의 표제가 유행어처럼 쓰이는 것이므로 그것의 범주가 광고 문안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6d)는 표어를 인용한 것인데, 자주 쓰이는 것은 그 범주를 명기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은 '표어'라는 범주 표시를 쓴다. (6e)는 제목을 인용한 것인데, 대부분의 인용된 제목은 유행어처럼 쓰이므로 일상 언어 활동에서는 그것의 소속 범주와 필자를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6f)는 유명인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화

12) 일상 언어 생활에서 논저를 인용하는 경우에 원문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 논저의 원문을 바꿔쓰기하여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필자, 그리고 ‘유명한 말’ 또는 ‘유행어’라는 말로 세부 범주를 밝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중 하나 또는 둘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 살펴본 예 (6a~f)는 일반적으로 인용절 형식으로 ‘…다고 한다’, ‘…다는 말이 있다’ 식을 취하고, ‘…다더라’ 형식은 잘 취하지 않는다. ‘…다더라’ 형식은 속담, 격언, 속신어, 속설 등에서는 종종 사용된다.¹³⁾ 그리고 전통적 부류를 포함하여 자주 쓰이는 인용 표현은 언어적인 인용 표시 없이 따옴표만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 (7) a. 어떤 자상한 선생님 한 분이 내 손을 잡으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b. 나는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좋은 사람이다.
 c. 이종범 - 이강철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기아에서 다시 한술밥 명가재건 부른 꿈
 d. 대기업과 협력업체, 거래업체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예 (7a~d)는 인용 표시가 하나도 없이 인용된 것들이다. 예 (7a)는 기본 형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인용이 아닌 것처럼 쓰였다. (7b)는 책 제목의 원래 형태의 어말어미를 변개하여 사

13) 선어말어미 ‘-더-’는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사건을 회상할 때 쓰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자는 원래 인용 표현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에게서 그 말을 듣는 경험을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더라.”라는 형식이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속담 등은 그것이 적용되는 상황이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흔히 발생되므로, 사람들은 속담 등을 예 (7a)에서처럼 자신이 직접 산출한 말처럼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한 말을 화자가 듣고, 나중에 이 말을 회상하는 경우에 선어말어미 ‘-더-’를 쓰는 것이다. 이것을 Lyons(1977:5-10)의 용어를 빌어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mention’에 해당하는 인용 표현을 ‘use’처럼 썼는데 이것을 들은 화자가 이 말을 회상하는 경우에 ‘-더-’를 쓴다는 것이다. 모든 세부 범주의 인용 표현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속담 등은 이런 경우가 자주 있고 표어 등은 이런 경우가 드물다.

용한 것인데, 어미나 조사가 변개되어 인용의 형식이 아닌 것처럼 쓰이기도 한다. 어미나 조사를 변개하는 현상은 인용 표현이 내포문으로 쓰이는 때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사 구조의 변개’보다는 기본 형태의 사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겠다. 예 (7c), (7d)는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인용되었지만 그 의미가 달라진 특수한 예이다. (7c)에서는 원래 ‘예비군’ 노래 가사의 첫 부분으로 ‘용사’가 ‘용병’이라는 개념적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서는 ‘뛰어난 운동 선수’를 가리켜 은유적 의미로 전환되었다. (7d)에서는 원래 ‘성적으로’라는 함축의미를 지녔으나 이 함축의미가 환유의 인접 원리에 의해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예 (7a~d)와 같이 적용되는 인용 표현은 속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이다.

지금까지 격식적인 언어 생활이 아닌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인용 표현의 기본 형태를 사용할 때 함께 나타나는 인용 표시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이때 인용 표현의 세부 범주에 따라 자주 나타나는 인용 표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에 요약하는 인용 표시의 이러한 현상은 엄격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경향성을 띠는 것이다. 명언의 경우 그것의 화자·필자, 출전 중에서 더 잘 알려진 것을 명기한다. 속담과 격언은 속신어와 속설에 비하여 그것의 세부 범주명을 밝히는 경우가 많고, 속신어와 속설은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학 작품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 작가가 명확하면 그것을 명기하고, 출전의 범주와 제목 중 하나는 생략한다. 가요 가사의 경우 제목은 밝히고 범주명과 화자 중 하나는 생략한다. 광고 문안은 범주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표어는 잘 알려진 것은 그 범주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목의 경우 범주명과 필자를 밝히지 않는다. 유명어의 경우 화자와 범주를 알려주는 말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생략한다. 모든 세부 범주의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또는 간접 인용의 인용절 구성을 취하는데, 전통적 부류가 신생적 부류보다 다른 인용 표시 없이 막연하게 간접 인용하는 형식을 더 자주 취한다. 인용 표현은 자주 쓰일수록

관련된 인용 표시들이 적게 사용되는데, 다른 인용 표시에 비하여 ‘인용 절 구성’이 가장 나중에 생략된다. 그리고 모든 인용 표시를 다 생략하고 인용 표현의 기본 형태 그대로, 또는 조사나 어미를 변개하여 표면적으로 인용이 아닌 것처럼 쓸 수 있다. 또한 속담, 가요 가사, 유명어 등 사용 빈도가 높은 인용 표현은 비유 기제에 의하여 의미가 전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

2.2. 구성 어휘의 대처

인용 표현은 화자가 그것을 사용하기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 이미 산출된 것이므로 일반 표현보다 형태의 동결도가 높다. 그런데 그 형태는 2.1에서처럼 그대로 쓰일 수도 있으나, 화자의 의도에 따라 상황과 맥락에 더 적절하게 변형되어 쓰일 수도 있다.

인용 표현은 어휘와 통사 구조로 구성되는데,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보면 어휘가 통사 구조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인용 표현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성 어휘를 대처하는 유형이 통사 구조를 변개하는 유형보다 사용 빈도가 더 높다.

인용 표현을 변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인용 표현의 세부 범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전통적 부류의 범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8) a. 저자는 오른발과 왼발을 교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이 행위를 통해 인간 문명의 형성과 본질에 접근한다. 그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나는 걷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 b.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
- c. 회원 중에는 어릴 때부터 버스만 보면 울음이 멎었다며 ‘천성적인 버스팬’을 주장하는 이들에게서부터 ‘하루라도 버스를 안 타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을 일삼는 열성 회원들이 그득하다.
- d. 그 결과, 다시 국정은 관료의,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것으로 회

귀했다.

(9) a. 돈벌이는 짧고 예술은 길다.

b. 뛰는 제도 위에 나는 엄마가 있는 법

c. 요즈음 의사들은 주진야독(晝診夜讀)해야 합니다.

d. 얼굴 표정을 밝게 하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있잖아요.

예 (8a~d)의 범주는 명언이고, (9a)는 격언, (9b,d)는 속담, (9c)는 고사성어이다. 전통적 부류의 범주 중에서 속신어와 속설은 구성 어휘를 대치하는 현상이 거의 없다. 속신어와 속설은 명언 등에 비하여 진리성이 떨어져 요즈음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이다. 구성 어휘의 대치가 종종 나타나는 범주의 경우에도 사용 빈도가 높은 소수의 인용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대치되는 어휘의 수는 보통 1~2개이다. 인용 표시로는 ‘...다고 한다’ 식의 인용절 구성만이 가끔 쓰인다.

대치되는 부분과 대치하는 부분의 의미 관계는 (8b), (9d)의 경우는 개념적 의미 관계이고, 나머지의 경우는 상황적 의미 관계이다. (9d)의 경우 대치되는 단어 ‘낮’과 대치하는 단어 ‘얼굴’은 개념적으로 유의 관계에 있는데, 이때 구성 어휘의 대치가 발생하는 것은 연상적 의미의 차이 때문이다. (8b)의 경우 대치되는 단어 ‘여자’와 대치하는 단어 ‘남자’는 개념적으로 반의 관계에 있는데, 이때에도 (9d)의 경우처럼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다’라는 연상적 의미가 작용한다. (8a)에서 ‘생각한다’와 ‘걷는다’는 이것들이 가리키는 사건 당사자에게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상황적 의미를 지니고, (8c)에서 ‘책을 안 읽으면’과 ‘버스를 안 타면’은 ‘필수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의미, (9a)에서 ‘인생’과 ‘돈벌이’는 ‘비예술적이다’라는 의미, (9b)에서 ‘놈’과 ‘제도’ 그리고 ‘놈’과 ‘엄마’는 ‘작용하는 주체’라는 의미, (9c)에서 ‘경(耕)’과 ‘진(診)’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일한다’라는 의미를 상황상 함께 지닌다. 이러한 의미는 대치되는 부분과 대치하는 부분이 상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화자가 판단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의미 관계를 상황적 유의 관계라 부르겠다. (8d)의 경우 대치되는 부분 ‘국민’과 대치하는 부분 ‘관료’는

맥락상 “원칙적으로는 국민이 주인이고 관료는 봉사자다”라는 전체를 지녀 상황적으로 반의 관계를 맺는다. 이상의 네 가지 의미 관계 중에서 상황적 유의 관계가 가장 자주 나타난다.

구성 어휘의 대치는 기본 형태의 인용 표현, 그리고 이것이 적용되는 사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융합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인용 표현과 적용 사건 사이에서 의미상 어색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인용 표현의 해당 부분을 적용 사건의 해당 부분으로 대치한다. (8b)를 예로 들어보면, “전에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라는 말이 맞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약하다.”라는 문장들을 융합하여 (8b)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융합된 표현은 대치된 부분이 초점화되고 간결하면서도, 기본 형태의 인용 표현을 사용한 효과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9d)처럼 두 부분이 개념적으로 유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연상적 의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효과만이 나타난다.

- (10) a. 비운의 시드니 스타, 균 향한 일편단심
b. 대출 문턱 높다하되 借金 아래 피이로다
- (11) a. 남북,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역사학’
b. 아내는 남편을 귀찮게 한다
- (12) a. 어업권 보상-허가권 전매 노린 ‘무늬만 어선’ 수두룩
b. 커피는 움직이는 거야!
- (13) a. 코리아닷컴은 초콜릿 박스에 여성의 사랑 고백이 저장된 CD를 담아 코리아닷컴 쿠퍼드 메신저탐이 직접 남자 친구에게 전달해주는 ‘CD는 사랑을 싣고’ 이벤트를 열었다.
b. ‘전동차는 광고를 싣고...’. 관광열차처럼 외벽 전체를 알록달록한 광고로 꾸민 전동차가 8월 중 운행된다.
- (14) a. 출산은 국력
b. 요즘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들도 아주 기발합니다! “약은 약사에 게, 합격은 허준에게!”라고 써 있는 약 봉투 모양의 초콜릿!
- (15) a. 조직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머릿수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해 조

직위에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준비된’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고 말했다.

위의 예들은 신생적 부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구성 어휘의 대치가 발생한 것이다. 이 부류의 범주 중에서 논저의 경우는 구성 어휘만이 대치되는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사 규칙의 변개와 함께 어휘의 대치가 발생한다. 위의 범주들 중에서 ‘제목’ 범주가 가장 활발하게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전통적 부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가 높은 소수의 인용 표현이 자주 이렇게 쓰이고, 인용 표시로 ‘…다고 한다’ 식의 인용절 구성만이 가끔 나타난다. 대치되는 어휘의 수는 광고 문안과 유명어의 경우 1개 정도이고, 나머지 범주의 경우는 1~2개 정도이다.

예 (10)의 범주 ‘문학 작품’에서는 운문이 주로 쓰이고, 이 중에서도 시조가 가장 자주 쓰인다. (11)의 가요 가사에서는 대중 가요가 주로 쓰이고, 그 제목이 가사의 일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12)의 광고 문안에서는 주로 1개의 어휘가 대치된다. (13)의 제목에서는 서적과 문학 작품의 제목이 가장 활발하게 쓰인다. (14)의 표어에서는 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보통 2개의 어휘가 대치된다. (15)의 유명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휘가 대치되는 빈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1개의 어휘가 대치된다.

(10a)에서 대치되는 부분 ‘임’과 대치하는 부분 ‘금’은 ‘매우 소중하다’라는 상황적 의미를 함께 전하므로 상황적 유의 관계에 있다. (11b)에서 ‘남자’는 ‘아내’로, ‘여자’는 ‘남편’으로 대치되었는데, 두 부분의 의미 관계는 엄격하게는 개념적 반의 관계가 아니지만 상황적 관계보다는 개념적 관계에 더 가깝다. 나머지 경우에 성립하는 의미 관계는 상황적 유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신생적 부류에서도 전통적 부류의 경우와 같이 상황적 유의 관계가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대치되는 부분도 인용 표현과 적용 사건이 불일치하는 곳이다.

2.3. 통사 구조의 변개

인용 표현은 상황맥락상 적절하게 통사 구조가 변개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통사 구조가 변개되는 양상은 일반 표현처럼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전통적 부류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 (16) a. 그들은 집회장에서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을 목청 높여 외치지만, 기실 정치를 바라보면 그들끼리의, 그들만을 위한 ‘나쁜 정치’ 경쟁에 불과하다.
 b. 나는 오늘도 걷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c. “이 지구가 내일 종말을 고한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누가 묻는다면, 아마 우리 한국인은 “나는 더 빨리 차를 몰아 앞차를 기어코 앞지르고야 말 것이다”하고 기염을 토할지도 모르겠다.
 d. “독일의 다하우 강제 수용소 벽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는 글이 써어 있다. 우리는 어떤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잊어 버렸다’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e. 밀려난 40대, 흔들리는 사회
 “그래도 두드리면 열린다”
- (17) a. 어려울 때 친구가 정말로 좋은 친구다.
 b. 이 과정에서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한중 무역이라는 숲은 보지 못하고 마늘 피해에만 집착해 소탐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c. 엄만 부자 되겠다. 컷볼이 이렇게 두겹잖아.

위의 예들을 분석해 보면 통사 구조의 변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구성 어휘의 대치와 통사 구조의 변개가 동시에 적용된 예들이 많다. 전통적 부류의 범주 중에서 명언, 격언, 속담, 속신어의 경우 통사 구조의 변개가 활발하다. 그러나 고사성어의 경우에는 복합어로 인식될 정도로 형태의 동결도가 높아서 구조의 변개가 극히 드물고, 속설의 경우에는 기본 형태를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태의 동결도가 낮아서 구조의

변개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예 (16a)의 경우는 ‘...에 의한’이 생략되었고, (16b)는 ‘오늘도’가 첨가되었다. (16c)에서의 중요한 변개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고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스피노자의 명언 중 일부분 - 앞부분만 사용한 것이고, 그 밖에 ‘이’의 첨가, ‘내일’의 어순 재배치, 주술 구조의 목술 구조로의 전환 등이 나타나 있다. (16d)에는 긍정의 부정화, 명령형 서법의 설명형 서법으로의 전환, 부정의 긍정화 등의 변개가 있다. (16e)에서의 중요한 변개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복문으로 축약한 것이고, 그 밖에 ‘문을’의 생략이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변개의 유형은 명언뿐만 아니라 격언, 속담, 속신어에도 나타난다. (17a)에서는 ‘정말로’가 첨가되었고, (17b)에서는 ‘나무를 보고’가 생략되었고, (17c)에서는 ‘이렇게’가 첨가되고 밑줄친 부분의 앞뒤가 도치되었다. 변개의 유형 중에서 ‘생략’과 ‘첨가’ 유형이 가장 자주 쓰이고,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도 많다.

- (18) a.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은 이제 문명의 충돌이 새로운 세계 분쟁의 양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b. “꿈엔들 땃줄이 잊힐리아...”
- c. ‘접시 못 깨는’ 교육부
한 장관이 취임했을 때 “접시를 깨자”고 했으나 직원들은 “언제 당할지 모르니 몸 조심하라”, “누가 접시를 깨겠느냐”는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 d. 요즈음 준비된 사람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는 준비도 안 된 사회자이니 실수가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 (19) a. 소총수들아, 너희가 ‘정보전’을 아느냐
- b. 올해 나이 39세, 프리랜서 출판 기획자인 여성 000 씨. 한때 유행했던 말처럼 화려한 싱글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직 결혼이라는 관계 속으로 자신을 몰고 가기엔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들은 신생적 부류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신생적 부류도 통사 구조의 변개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구성 어휘의 대치와 통사 구조의 변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생적 부류의 범주 중에서 광고는 통사 구조가 변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표어의 경우도 드문 편이다. 이것들은 통사 구조가 중요한 표현 형식에 해당하여 그 구조를 변개하면 전달 효과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제일 활발하게 통사 구조가 변개되는 범주는 제목이다. 요즈음 범주로서의 제목은 해당하는 인용 표현의 수가 많고 자주 쓰이기 때문이다.

예 (18a)는 논저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인데, 논저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바뀔쓰기를 하므로 통사 구조의 변개와 구성 어휘의 대치가 동시에 발생한다. (18b)는 정지용의 시에서 일부분을 인용한 것인데, ‘그곳이’가 ‘핏줄이’로 대치된 상태에서 어순이 재배치되었고 ‘차마’가 생략되었다. (18c)에서는 대중 가요의 가사의 일부분인 ‘접시를 깨자’에 부정화, 첨가, 서법의 전환이 적용되었다. (18d)에서는 유명어에 부정화가 적용되었다. (19a)와 (19b)는 제목에 해당하는 것인데, (19a)에서는 ‘소총수들아’가 첨가되고 ‘고딩’이 ‘정보전’으로 대치되었다. (19b)에서는 ‘나는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좋다’의 일부분인 ‘화려한 싱글’만이 쓰였다. 자주 쓰이는 유형으로는 전통적 부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략, 첨가 유형이고,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역시 많다.

Ⅲ. 인용 표현의 지도 방법

3.1. 지도의 내용과 방향

인용 표현의 지도 내용에 대한 고찰은 먼저 인용 표현의 세부 범주를 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통적 부류에서 명언, 격언, 속담, 고사성어의 범주는 국어 교육의 지도 내용에 속해야 한다는 데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어 교육에서는 이 범주들

만이 인용 표현을 구성해 왔다.¹⁴⁾ 그러나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의사 소통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국어 교육의 성격을 고려하면 II장에서 다른 다른 범주들도 지도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속설의 경우는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일상적인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으므로 지도 내용에서 제외한다.¹⁵⁾ 속신어의 경우 미신성이 강한 것은 제외하고, 미신성이 약하고 전통 문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은 지도 내용에 포함시킨다. 속신어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구비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논저 범주의 인용 표현은 그 내용과 관련된 해당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가요 가사, 광고 문안, 표어, 제목, 유명어의 경우는 교육적으로 건전한 내용을 지니고 비교적 지속적으로 쓰이는 것을 지도 내용으로 삼는다. 신생적 부류는 유행어적 성격이 강하여 일시적으로 쓰이다가 사라질 것들이 많으므로 해당 인용 표현의 선정에 유의해야 하고, 교과서 개편시 새로 발생한 적절한 예로 대체하여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용 표현은 어휘만큼 형태의 동결도가 높지는 않지만 언어 대중이 자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동결도가 일반 표현보다 높다. 그리고 인용 표현 중에는 비유를 비롯한 수사적 표현도 상당수 있어 어느 정도의 독립된 형태와 의미를 지니므로 어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휘 지도 방법을 고찰할 때 어휘에 대한 연구가 기초로 전제되어 있어야 하듯이 인용 표현의 지도의 경우도 대체로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어휘에 대한 연구는 크게 분포 연구와 관계 연구로 나누어지고, 전자는 어휘의 계량, 체계, 위상적 양상, 화용적 양상의 분야로 하위구분 되고 후자는 공시적 관계, 통시적 관계로 하위 구분된다(김광해, 1993:33). 인용 표현의 경우 인용 표현의 계량, 체계, 화용적 양상, 공시

14)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에서 인용과 관련하여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다른 사람의 말 등의 세부 범주를 제시한다.

15) '속설'의 대한 설명이나 예를 국어교육에서 다룰 수는 있다. 그러나 '인용 표현'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영역에서는 '속설'을 다루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 다. 그 영역에서 다루는 '인용 표현'은 그 내용이 일상적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적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의 연구는 이 모든 하위 분야를 다 다루지 못하고 화용적 양상과 관련된 한 영역에 대한 것만 다루었다. 그러나 인용 표현의 지도 방법을 고찰할 때 관련된 기초 연구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인용 표현의 지도는 또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어느 발달단계에서 인용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언어 자료에서 발견해야 하는데, 아직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과 관련된 간접적인 연구로 인용 표현은 주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쓰이므로 학생들이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발달단계를 고찰한 것을 참조해 볼 수 있겠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직접적이고 강한 요청 행위나 현상에 대한 강한 주관적 판단을 보여 준다(서혁, 1998:343).¹⁶⁾ 요청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인용 표현의 효과와 그 사용 전략을 지도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이 단계 이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언어 사용 능력이 일반적인 인지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인지언어학적 관점(Langacker, 1987:13,76), 그리고 사회적, 인지적 요소 등이 언어 습득에 영향을 끼치고 언어 습득이 이 요소들의 발달을 조절한다는 상호작용주의적 언어 습득 접근(정동빈, 1994:24) 등도 인용 표현의 학습 전략을 고찰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언어 발달단계와 인지 발달단계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인용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역적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명언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

16) 이 논문은 한 초등학생의 일기 텍스트를 자료로 하여 초등학생의 텍스트성 발달에 관한 사례를 연구한 것이다. 여기서 5학년 단계의 일기에서 ‘표어’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의 피관찰자인 학생은 학교 성적이 상위권이고 표현 능력 또한 우수한 편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한 것을 고려하면 보통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는 5학년 단계 이후에 ‘표어’의 인용이 나타날 것이다.

다는 적용 상황이 있고, 화자가 이 말을 통하여 “나는 대학입시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게 마련이다. 이때 명언은 대전제, 적용 상황은 소전제, 화자의 의도는 결론에 해당한다.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르면 11~15세의 형식적 조작기에 과학적 사고 및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한다(정명숙 역, 1999). 서혁(1998)과 Piaget의 인지 발달단계를 고려해 보면 인용 표현의 지도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¹⁷⁾

지금까지 지도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인용 표현의 교수학습 방법을 고찰하면 더 효율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절의 다음 항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참조로 하되, ‘II. 인용 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에서 고찰한 결과를 중심으로 지도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형태적 양상을 기본 형태의 사용, 구성 어휘의 대치, 통사 구조의 변개 이 셋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이 셋의 순서는 학습의 곤란도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 형태의 사용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다.

3.2. 기본 형태의 사용 지도

인용 표현의 지도는 국어과의 하위 영역 중 표현·이해 영역에서 포괄적이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언중이 인용 표현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설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세부 범주는 국어 지식적으로, 문학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어 이 영역들에서도 다루어진다. 속담과 고사성어는 관용적 어휘소로서 그것의 형태, 통사, 의미,

17)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6학년 듣기 영역에서 “말하는 이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며 듣는다.”, 말하기 영역에서 “속담이나 격언,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말한다.”, 읽기 영역에서 “글쓴이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한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7학년 쓰기 영역에서 “주어진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을 적절히 인용하여 글을 쓴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화용적 특성 등에 대한 지식이 국어 지식 영역에 해당된다. 문학 작품 범주의 인용 표현은 그것과 관련된 전체 텍스트의 구조,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속담과 속신어의 경우는 그것에 대한 문학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 문학 영역에 해당한다. 국어 지식과 문학 영역의 내용은 표현·이해 영역과 당연히 관련이 있으나,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과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속담의 경우에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어 생활에 필요한 적정량의 속담의 형태와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기초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도는 국어 지식과 문학 영역에서 수행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인용 표현의 지도는 표현·이해 영역에서 이러한 일부 세부 범주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인용 표현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다.

표현·이해 영역에서 인용 표현의 기본 형태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학습 내용으로 인용 표현의 존재와 표현 효과를 인식하기, 세부 범주의 개념 알기, 화용적 특징 알기, 기본 의미와 함축 의미 파악하기, 인용 표시 사용하기, 생성 유래 알기, 말하기와 쓰기에서 활용하기 등이 있다.

인용 표현에 대하여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전통적 부류의 세부 범주 중에서 명언, 격언, 속담을 중심으로 다룬다. 그리고 인용 표현의 격식적인 사용 양상보다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것들의 학습 내용으로 인용 표현의 존재와 표현 효과 알기, 세부 범주의 개념 알기, 기본 의미 파악하기, 인용 표시 사용하기, 일상적인 언어 활동에서 활용하기 등을 들 수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전통적 부류 중에서 고사성어, 속신어 범주, 그리고 신생적 부류의 세부 범주들을 다룬다. 고사성어의 경우 학생들이 그것을 구성하는 한자에 대하여 안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속신어의 경우 그 기본 의미의 진실도가 낮아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단계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용 표현의 일상적인 사용 양상, 격식적인 양상을 모두 다룬다. 학습 내용으로 화용적 특성, 함축 의미 파악하기, 생성 유래 알

기, 격식적인 언어 활동에서 사용하기 등을 들 수 있다.

인용 표현 중 비유 표현은 비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표현 효과에 대해서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비유는 유추적 사고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유추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용 표현을 배우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비유적인 인용 표현의 관련 효과에 대하여 지도한다. 그리고 비유 표현의 경우 기본 의미를 파악할 때 축자 의미와 기본 의미 사이에 있는 유사성을 발견하여 기본 의미를 유추해 보도록 하는 활동을 먼저 하도록 한다.

인용 표시의 사용을 지도하는 경우에 발화 상황을 일상적인 상황과 격식적인 상황으로 나누어서 세부 범주에 따라 나타나는 대체적인 경향을 가르치고, 구체적인 상황 - 시간, 장소, 화자, 청자 등에 따라 인용 표시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유의형과 반의형이 비교적 많이 있는 속담과 같은 경우에 중학교 단계에서 이것들을 가르친다. 이때 유의형이 반의형에 비하여 훨씬 더 많으므로 유의형을 먼저, 반의형을 나중에 가르친다. 속담의 유의형은 기본 형태의 구성 어휘를 대체하거나 통사 구조를 변개한 것이 대부분이라 유의형을 지도하는 것은 다음 단계 '창의적 사용 지도'에서 배울 내용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3.3. 창의적인 사용 지도

인용 표현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창의적으로 아주 뛰어난 능력이다. 그러나 기본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도 창의적인 행위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고, 이것은 기본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기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용 표현의 창의적 사용을 지도하는 것은 기본 형태의 사용을 지도할 때부터 조금씩 지도하는 것이 인지 발달상 자연스럽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도는 기본 형태에 대하여 충분히 학습한 후인 고등학교 단계에

서 시행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인용 표현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단계는 구성 어휘의 대치, 통사 구조의 변개, 새로운 인용 표현의 생성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성 어휘의 대치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용이하므로 이것을 먼저 가르친다.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일상 언어 생활에서 대치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인용 표현을 찾아서 기본 형태와 대치된 형태 두 가지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치된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추를 통하여 알게 한다.¹⁸⁾ 예를 들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기본 형태의 명언과 “내 사전에 패배란 없다.”라는 어휘 대치 표현을 제시한다. 이어서 기본 형태의 기본 의미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치 형태의 의미 “나에게 패배는 없다.”를 파악하게 한다. 그리고 대치 형태를 사용한 화자가 기본 형태의 표현 형식을 원용하는 기제가 유추라는 것을 가르친다. 즉,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 나에게 패배는 없다 : X, X=내 사전에 패배란 없다”라는 유추를 통하여 대치 형태가 생산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유추를 통하여 대치 표현을 만드는 것에 익숙해지면, 기본 형태의 구성 어휘들을 다양하게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 관련된 적용 사건에 대하여 역으로 유추하는 활동을 해 본다. 이렇게 유추 기제를 활용하여 구성 어휘를 대치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적절한 대치 형태를 신속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될 것이다.

통사 구조의 변개의 경우 세부 유형 중 생략이 가장 흔하므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예를 먼저 제시한다. 예를 들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 더러워서 피하지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X, X=새우등 터진다”라는 유추를 통하여 생략 등의 통사적 변개의 원리를 습득하게 한다. 그리고 구성 어휘의 대치와 통사적 변개가 동시에 적용

18) 대부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어떤 식으로든 유추에서 시작하고(김영채, 1999: 143-4), 아동들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추라는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박영신 역, 1995:344-5). 또한 유추는 화자에게 익숙한 기존의 단어에 기초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심리적 기제이다(채현식, 2000:68).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통사적 변개를 지도하는 단계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지도한다. 새로운 인용 표현의 생성 단계에서는 먼저 학생들 집단에서 이미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에서 이것을 찾아서 설명하고, 나중에 세부 범주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IV. 마무리

본 논문은 언어 대중이 표현 효과를 염두에 두고 종종 인용하는 언어 표현이 형태상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고찰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인용 표현의 지도 방법을 구안하고자 했다.

먼저 인용 표현을 전통적인 부류와 신생적인 부류로 구분하고 이것들의 세부 범주를 제시했다. 이어서 인용 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을 기본 형태의 사용, 구성 어휘의 대치, 통사 구조의 변개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세 하위 양상이 전통적 부류와 신생적 부류에서, 그리고 이것들의 세부 범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고찰했다.

지도 방법에서는 먼저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을 원용하여 본격적인 인용 표현의 지도 시기를 초등학교 6학년부턴으로 추정해 봤다. 그리고 인용 표현의 일부 세부 범주는 국어 지식과 문학 영역에서 지도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표현·이해 영역에서 모든 세부 영역을 포괄하여 언어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어서 형태적 사용 양상의 곤란도에 따라 지도 단계를 기본 형태의 사용 지도, 창의적인 사용 지도로 나누었다. 창의적인 사용 지도의 경우 유추 기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화용론의 연구 영역 중 형태상의 양상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화용론의 다른 연구 영역 등 관련된 다른 방법의 연구들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도 방법을 좀더 구체화하고 본고의 제안을 실험으로 검증하는 것도 추가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강태정 편(1997), 명언·명구 활용 사전, 서림문화사.
- 경동호 편(1992), 주제별로 엮은 - 좋은말 사전, 지문사.
- 고영근·남기심(1993),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 과정.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광해(1993), 국어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영채(1999), 창의적 문제 해결 : 창의력의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 박금자(1999), 일간신문 제목에 나타나는 응집성, 패러디, 생략 현상, 텍스트언어학 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박동규 편(1997), 세계 명언 백과사전, 자유문화사.
- 서정수·정달영 편(1998), 세계 속담 대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 서혁(1998), 초등학생의 텍스트성 발달에 관한 사례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 이기문 편(1980), 속담 사전, 개정판, 일조각.
- 이신성·신원기(1999), “고사성어의 활용 방안에 관한 시론”, 국어교육 9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종철(1993),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함축적 표현의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2001), “관용적 어휘소의 사용 양상과 지도 방법”, 국어교육10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필영(1992), 현대국어의 인용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종욱 편(1996), 고사성어 대사전, 고려원.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정동빈(1994), 언어발달 지도, 한국문화사.
- 채현식(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최래옥(1995),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 집문당.

한국미디어교육센터 편(2001), 멋진 편집 좋은 신문, 한울.

Flavell, J.H., Miller, P.H., & Miller, S.A.(1993), *Cognitive Development*,
3rd edition, 정명숙 역(1999), 인지 발달, 나남출판.

Lyons, J.(1977), *Semantics vol 1*, Cambridge Univ. Press.

Ronald W. Langacker(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I*,
김중도 역(1999), 인지문법의 토대, 박이정.

Siegler, R.S.,(1991), *Children's thinking*, second edition, 박신영 역
(1995), 아동 사고의 발달, 미래.

<초록>

인용 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과 지도 방법

이 종 철

언어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종종 인용하는 언어 표현을 알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적절히 인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 교육에서 인용 표현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인용 표현이 형태상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고찰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인용 표현의 지도 방법을 구안하고자 했다.

먼저 인용 표현을 전통적인 부류와 신생적인 부류로 구분하고 이것들의 세부 범주를 제시했다. 이어서 인용 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을 기본 형태의 사용, 구성 어휘의 대치, 통사 구조의 변개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세 하위 양상이 전통적 부류와 신생적 부류에서, 그리고 이것들의 세부 범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고찰했다.

지도 방법에서는 먼저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을 원용하여 본격적인 인용 표현의 지도 시기를 초등학교 6학년부터로 추정해 봤다. 그리고 표현·이해 영역에서 모든 세부 범주를 포괄하여 언어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어서 형태적 사용 양상의 곤란도에 따라 지도 단계를 기본 형태의 사용 지도, 창의적인 사용 지도로 나누었다. 창의적인 사용 지도의 경우 유추 기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인용 표현, 기본 형태의 사용, 구성 어휘의 대치, 통사 구조의 변개, 기본 형태의 사용 지도, 창의적인 사용 지도, 유추

<Abstract>

Aspects of using quotation forms and their teaching method

Lee, Jong-chul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 of communicating is to get to know expressions which people quote often and to use them appropriately.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research about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for quotation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irst, quotations are classified into traditional ones and newly made ones, and their subcategories are also suggested. Next, the aspects of using quotation forms are classified into using the basic forms, substituting the composed lexical items and transforming the structures. The aspects are also studied to clarify how concretely they are realized in the traditional quotations and newly made ones, and in their subcategories, too.

With the research results, the subcategories of quotations are discussed as to which should be dealt with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Quotation teachings are divided into the first stage where the basic forms are taught, and the second stage where creative usages are dealt with. It is suggested that the mechanism of analogy is effective in teaching creative usages of quotations.

[Key words] substituting the composed lexical items, transforming the structures, teaching creative usages, analogy